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우은식	학번	
이메일	gourmet337@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전공)University of Kentucky IMMPI(비학위)	(국가)미국
기간	2018년1월-12월	[귀국일: 2019년 1월 1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월 17일

신청인 : 우은식 (인)

-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GMP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는 해외대학 결정일 것이다. 학위, 비학위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학교가 달라지고 물가, 생활여건, 아이들 학교문제, 주변 여행지, 치안문제, 배우자 활동 관심분야 등에 따라 선정 지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위과정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도 본인을 위해 좋은 일이나, 가족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많은 비학위 과정을 선택했고 1년을 보낸 후 되돌아 보면 나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

Lexington Kentucky는 한국에는 다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지만 교육도시(University of Kentucky; UK)로서 인구 30만의 작지도 크지도 않은 미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상위 30위안에 드는 생활하기 편한 도시다.

내가 Lexington을 선택한 이유도 이 같은 생활여건과 지리적 이점(시카고, 아틀란타까지 차량으로 6시간) 때문이 아닌가 싶다. 동부 워싱턴 8시간, 뉴욕 12시간 정도면 자동차로 갈 수 있고,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인 Great Smoky Mountain도 차량으로 4시간이면 갈 수 있다. 특히 물가도 저렴해 다른 도시에 비해 아파트 월세가 많이 들지 않는 것(방2개 욕실2개 월 \$950 수준)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기름값(\$1.8-\$2.2/G)과 골프비(\$9-\$14/18홀)도 여행을 다녀본 결과 Lexington이 저렴했다. 한국 골프장에 깔린 양잔디 blue grass가 바로 이곳에서 자라는 잔디 품종으로 겨울철 몇 달을 제외하면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나 골프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렉싱턴 시립 골프장 5곳은 겨울철에는 \$9, 봄 가을에는 \$12(UK 학생할인 가능)에 한 라운드를 돌 수 있다.

기후는 한국과 비슷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맑은 하늘을 언제든 볼 수 있어 1년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공기청정기속에서 생활했던 것이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다. 수변 공원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 반딧불이를 흔하게 만날 수 있고, 날마다 펼쳐지는 멋진 일출과 일몰광경에 발길이 자연스레 베란다로 향하게 된다.

Lexington에는 Costco가 있어 많이 이용했고, sam's club, Walmart, klogar 등 부족함이 없었다. 한국 식료품점도 시내에 3개나 있고, 한식당도 4곳이 있어 자주 이용했다. 쇼핑의 경우 여행다니면서 Tanger outlet을 방문했고, Lexington에서 40분거리에 있는 Simpsonville premium outlet도 많이 갔다. 수시로 sale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앱에 등록시켜 놓고 할인율이 클 때 들리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다.

미국 도착시 딸 아이가 만으로 5세가 되지 않아 봄학기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Pre School(Summit school)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다녔고, 가을학기에는 공립학교(Rosa Park elementary)에서 운영하는 Kinder Garden에 무료로 입학할 수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평가 10점을 받은 유명한 초등학교로 한국 유학생들이 주로 Beaumont APT에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 .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내가 다닌 UK Martin School IPPMI(International Public Policy & Management Institute) 과정은 10년이 넘는 행정학 전문 연수과정으로 KDI와 연계된 것은 3-4년 된 것으로 안다. 매년 30명 정도의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이곳으로 연수 파견을 올 정도로 인기있는 코스다.

2016년도 U.S. News & World Report 발표에 따르면 UK Martin School은 전미 Public Finance & Budgeting Program에서 4위, Best Public Policy Analysis Program에서 28위를 각각 기록했다.

KDI와 연계된 비학위 과정인 직무연수(Executive Certificate Program)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전문교육과정과 직무훈련과정이 병합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학생들로 편성된 5-6명 단위의 class에서 ESL(어학연수) 수업이 매일 3시간씩 진행되고, 매주 1회에서 2회 Martin school 교수들이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 수업이 진행된다. 미국의 정치체제, 경제, 교육, 노동, 에너지, 의료, 재정, 지방행정, 언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수준 있는 수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함께 질의 응답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다양한 초빙 강사들의 다양한 이력과 출신배경 그리고 그들의 영어 액센트를 경험하면서 어학 습득에도 큰 도움이 됐다. 물론 처음에는 100% 알아듣지 못했지만 차츰 나아졌다. 외국인인 만큼 영어 표현에 대한 완벽주의를 버리고 그냥 내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2학기때에는 IPPMI 과정의 특징인 Intern Ship 교육이 진행된다. 연수생들이 관심분야에 맞는 행정기관 내지 공공기관에 실제 근무하면서 실무 현장 경험을 쌓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 같은 경우 130년 전통의 유서깊은 신문사인 Lexington Herald Leader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미국 중간선거일에 신문사를 방문해 선거 종료 직후 바쁘게 돌아가는 신문사 편집국 내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그곳 정치부 기자와 만나 남북관계와 북미 정상회담 재개 여부, 중국의 부상, 신문산업 위기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봄, 가을 진행되는 field trip도 좋았다. Cleveland를 방문했을 당시 클리브랜드 시장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Kentucky주 청사와 주지사 관저, Woodford, Midtown county, Lexington emergency center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UK 중앙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같이 자유분방하게 토론하면서 벽 한쪽면을 가득 채우며 메모도 하고 밤샘 공부하는 현지 대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이곳 도서관은 시험기간이 아니면 금요일 저녁부터 문을 닫는 것도 특이했다.

학위과정이 Report와 시험 등 student로서의 수업부담이 많은 반면, 직무과정은 학점 이수를 위한 강의보다는 Specialist로서의 관공서 및 현장 방문, 전문가 특강, 석좌교수 초빙 강의 등 다양한 경험을 강조해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유익한 시간이

었다.

